전북 개최 전국체전 이틀 앞으로…

'성공 체전' 전북 대도약 시대의 문 활짝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국체전은 '생동하는 전북의 꿈, 하나되는 한국의 힘'을 표어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주개최지인 익산을 비롯해 도내 전 시군에서 일주일간 펼쳐진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이번 전국체전을 문화와 예술, 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민대통합 한마당으로 치르기위해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다.

이제 노력의 대가로 '전국체전 성공개최'라는 수확물만 얻으면 된다.

제99회 전국체전을 사흘 앞둔 9일 전국체전의 역사와 출전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12일 전북 일원에서 치러진다. 사진은 최근 열린 전국체전 전북선수단 결단식.

▲전국체전의 역사

전북체육회 백년사 자료를 보면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처음으로 열린 것은 1963년 제44회 대회이다.

도 체육회는 도내 각계인사 400여명으로 구성된 체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준비위원회는 당시 기린공설운동장이 체전을 치러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새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전주종합운동장이다.

당시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였는 데 전북도민들의 성금으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전국체전은 전주시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전북도는 체전을 위해 전주교~전주대교간 4차선 대로를 건설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전주의 간선도로인 팔달로다.

무엇보다 제44회 체전의 가장 큰 의미는 전북체육의 질적, 양적발전을 촉진했다는데 둘 수 있다.

1980년에 열린 제61회 전국체육대회는 회갑의 나이테를 긋는 체전이었다.

한국체육 60년사를 마무리 짓고 새 시대, 새 역사의 개막과 더불어 새 의지로 처음 갖는 새 체전이라는 점과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복지의 80년대를 맞아 내외에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버스와 택시요금 할인, 자매결연 지원, 숙박업소 요금할인, 의료기관 무료진료 등 불편없는 손님맞이와 헌신적인 봉사, 후한 인심은 그릇된 전북의 이미지를 인심 후하고 살기 좋은 전북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세 번째 전국체전은 1991년 제72회 대회이다.

제72회 전국체육대회는 30년만에 다시 개막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UN가입이 북한과 동시에 이룩 돼 그 어느 대회보다도 경축의 뜻이 깊었다. 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출전에 앞서 우리의 경기력을 총 점검하는 기회였다.

당시 체전은 민족단합 국민화합의 화합체전, 선진도민 의식속에 질서체전, 근검절약 체전을 목표로 이뤄졌다.

전국체전 성화봉송

전북에서 열린 체전의 역사

최초로 열린 것은 1963년 대회
전북 체육의 질·양적발전 촉진
1980·1991·2003년에도 개최

2003년 전북에서 개최된 제84회 전국체전은 화합과 문화, 알뜰체전의 의미를 담아 다른 어느 체전보다 판정시비가 적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치러지는 제99회 전국체전은 15년만에 전북에서 치러지는 것이며,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 도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준비하는 참여체전,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실속있는 경제체전,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안전체전으로 치러진다.

▲전북 선수단 필승 출전

전국체전 개최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왔다.

또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천년고장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 미래성장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

아울러 침체 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약 3만명이 참가하며, 총 47개 종목이 73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경기장은 도내 14개 시군에 각 지역 특화종목과 안배를 고려해 최소 1개 이상씩 배정됐다.

전북 선수단은 선수와 임원 등 총 1725명이 참가하며 전 종목에 출전, 종합목표 3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선수단 출전 해외동포 선수단 참가

1725명 참가 종합순위 3위가 목표
해외동포선수단은 1300여명으로
역대 최대… 베트남 동포 첫 출전

이번 체전을 통해 과거 체육강도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각오를 세웠고 개최지 이점을 최대한 살려 과거 상위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해외동포 선수단 참가

이번 전국체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동포선수단이 참가한다.

18개국 총 1300여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이 참가하는 데 이같은 현황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 동포 선수단은 축구와 볼링, 탁구, 테니스 등 13개 종목에 출전하는 데 특히 베트남 동포 선수단이 처음으로 출전한다.

또 체전기간 한민족대축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외동포회장단 간담회, 환영만찬 등을 마련해 친교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최형원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국체전준비단·도내 14개 시군 등과 정말 열심히 대회를 준비해왔다"며 "이번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전문성 제고 제도개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촉구
11일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22일 지방분권 촉구 결의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김부겸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오는 11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며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시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체전 준비 끝… 모습 드러낸 전북 국제양궁장

실내훈련장 등 운영시설 완료… 도, 내일 준공식 열어

전북도 국제양궁장이 전국체전을 대비해 경기운영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제99회 전국체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전북도 양궁장은 임실군에서 7만 3,683㎡ 토지를 제공하는 양궁장 건립계획을 전북도 양궁협회와 2013년 9월 25일 수립하고 주경기장(2만 9,400㎡)과 보조경기장(5,000㎡), 산책로 등 2017년 12월에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실내훈련장 등 경기운영시설(2,675㎡)을 지난 4일 완료했다.

전북 국제양궁장 전경

올해 4월에 착공한 경기운영시설은 광주 국제양궁장, 예천진호양궁장, 청주 김수녕양궁장, 인천제철 양궁훈련장, 진천 국가대표 훈련장 등 견학한 내용 및 전북도 양궁협회, 양궁전문가, 양궁감독의 조언을 훈련 및 경기에 관한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실내에 남녀 선수훈련장, 심판실, 방송실, 기록실,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실내훈련장 등 경기운영시설을 완료한 전북도는 10월 11일 준공식을 개최하여 양궁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의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 국제 양궁장은 전국체전에 대비해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준비했다"며,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 추진

잼버리예정지 인근 국도30호변 유휴부지 공원화
도-부안군-전주국토관리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 부안군,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8일 도에 따르면 잼버리예정지 인근 국도30호변 유휴부지를 공원화하는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의 기관별 역할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바람모퉁이'로 불리는 부안군 하서면의 국도변 국·공유지 1만2,914㎡(3,900평)에 28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전망데크, 주차장, 안내센터, 화장실, 조형물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바람모퉁이'는 세계잼버리 개최부지 전부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위치이며, 새만금지역의 새로운 명소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쉼터제공 뿐만아니라 2023세계잼버리 홍보의 중심센터로 재탄생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 부안군,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부적으로는 "전북도가 상징조형물(3억), 부안군이 건축공사 등(16.5억),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기반조성(8.5억)을 분담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긴밀히 사전협의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남북,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이낙연 총리, 한글날 경축식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남북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2회 한글날 경축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남북의 편찬위원들이 각각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모체로 양측의 어휘를 종합·정리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때 시작해 25차례 이어졌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15년 중단됐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이어가려 한다"며 "이렇게 남과 북이 달라진 것들을 서로 알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남과 북이 세종대왕 때처럼 온전히 하나 되는 날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며 통일의 날을 기대했다.

이 총리는 한글은 우리의 자산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우리처럼 스스로의 말과 글을 모두 가진 민족은 많지 않다. 마흔 가지 글 가운데서도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확실한 것은 한글이 거의 유일하다"며 "한글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 자랑스럽게 지키고 가꿀 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8일 국무회의에서 한글확산에 기여한 방탄소년단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키로 의결한 것을 거론하며 "한글을 배우는 세계인이 갈수록 늘어난다"며 특히 "세계의 젊은이들은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랫말을 받아 적고 함께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겨레의 말과 글을 지키고 다듬으며 가꾸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며 "한글학회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모두가 애쓰자. 정부가 앞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돌도 없이 값진 한글과 그것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가짜뉴스 퇴치, 조작 없애는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SNS상 가짜뉴스 강력대응 방침을 앞서 시사한 것과 관련해 야권 중심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는 언론의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